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'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소'

성지연 기자 wldus2916@gmail.com

기사입력 2025.12.18 16:16:54 최종수정 2025.12.18 16:16:54



-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보은군 어암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.

[충북일보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최근 보은군 어암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주민 20명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소'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.

이 날 농지은행 상담소는 2024년부터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1호 가입자와 함께 직접 경험한 사업의 장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또한 보은지사 농지은행 담당 직원들이 농지은행사업 관련 마을 주민들과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.

마을주민들은 평소 농지은행 사업, 농지 관련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.

충북본부는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고, 더 많은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최현수 충북본부장은 "앞으로도 농업인 등 주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,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지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"라고 말했다.

/ 성지연기자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